

## 충남도, 중점 유치 공공기관 44개로 확대

- 본격적인 공공기관 유치 나서

충남도가 혁신도시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기존 34개에서 44개로 확대했습니다.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총선 이후가 될 전망인 가운데 충남도가 본격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나선 겁니다.

우선선택권인 드래프트제와 탄소중립·문화체육·경제산업 특화 기능군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파급효과와 정책방향을 감안해 ‘유치 관심 대상 기관’을 확대했습니다.

드래프트제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고,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후 후속 절차가 없는 차별적인 상황에 따라 충남도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우선 선택권입니다.

충남도는 공공기관 유치 선제 대응을 위해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내에 합동임대청사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단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30년 준공...미래차·이차전지·AI 등 중점 육성 계획

충남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는 홍성군 홍북읍 일원에 2026년 착공돼 오는 2030년 약 235만㎡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미래자동차·2차전지·인공지능(AI)·수소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이번 용역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응해 내포 국가산단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날 LH대전충남본부에서 열린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군은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미래신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아산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과 연계해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 전초기지로 키우고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드론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은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부품인증센터, 충남대 스마트모빌리티 연구센터와 연계해 산업단지를 운영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2029년 충남 내포에 문 연다

- 당월 착공 실적 전년대비 52% 하락
- 건설사 PF대출 등으로 분양가 인상 불가피
- 2011년 이후 가장 적은 착공실적, 공급 부족으로 집값 급등 예견

충남 주력산업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가 2029년 내포신도시에 문을 열 전망이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2024년 정부예산에 ‘충남혁신도시 칩앤모빌리티(Chip & Mobility) 영재학교 설립’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내년 기획용역비 5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은 2028년까지 841억원이다.

이에 따라 충남 칩앤모빌리티 영재학교는 카이스트 부설로 설립될 예정이다.

자타공인 국가를 대표하는 영재학교가 충남에 들어서는 것이다.

충남 영재학교의 주력 분야는 반도체와 모빌리티로, 모두 충남의 주력산업에 해당한다.

충남은 삼성SDI 천안캠퍼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밀집하며 반도체와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모빌리티는 충남의 또 다른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와도 연계성이 큰 업종이다.

칩앤모빌리티 영재학교 설립으로 충남 주력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과 기업 인력 공급 등 산·학 연계가 강화되는 것이다.

또 영재학교는 충남 수부도시인 내포의 인구 유입에도 직접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자녀 교육을 이유로 내포 이주를 망설이는 가정이 적지 않은 만큼, 영재학교는 이전을 앞둔 수도권 공공기관이 내포로 새 둥지를 옮기는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

## 셀트리온 충남에 '3천억' 투자한다

### - 2028년까지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9만9291㎡ 부지에 생산시설 확보

국내 대형 바이오제약기업인 셀트리온이 충남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달 30일 충남도청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최재구 예산군수와 투자협약을 했다.

셀트리온은 오는 2028년 12월까지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9만9291㎡ 부지에 생산시설 확보 등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세부 투자 계획은 추후 결정된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매출 약 2조3000억원을 달성한 대형 바이오제약기업으로 지속해서 늘어나는 바이오의약품 공급 수요에 대비해 해당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도내에 바이오제약 대기업이 들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또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도와 예산군은 셀트리온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행정·재정 지원에 나선다.

도는 셀트리온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예산군 내 생산액 6990억원, 부가가치 3004억원이 증가하고 신규 고용 인원은 1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공장 건설에 따른 도내 단발성 효과는 생산 유발 4349억원, 부가가치 유발 1607억원, 고용 유발 4405명으로 추산됐다.

## '홍성-용산 48분'... 서해선-KTX 연결사업 예타 착수 기대감

- 내주 기재부 재평위 개최 예정...선정 여부 결정
- 기재부 서해안권 고속철도 필요성 공감 전해져
- 서해선-KTX 연결시 홍성-용산 2시간 → 48분
- 행정 절차 축소되면 2030년 전에 개통 예상

충남 홍성과 서울 용산까지 이동시간을 48분으로 단축하게 할 '서해선-경부고속선(KTX) 연결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 선정으로 가시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달 21~25일 사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재평위)가 열려 서해선-KTX 연결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중략)

서해선-KTX 연결은 경기 화성 향남과 평택 청부 일원에 두 철도를 잇는 7.1km 구간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5491억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사업기간은 국가계획 상 2030년까지다.

서해선과 KTX를 직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와 수도권과의 교통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기 때문이다.

현재 내포 인근 홍성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가려면 장항선을 타야 하는데, 약 2시간 소요된다.

반면 2024년 하반기 서해선의 홍성~경기 송산 구간이 개통되고 이후 KTX와도 직결되면 홍성~용산 이동시간은 48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사실상 충남과 수도권을 1시간 안쪽으로 오갈 수 있게 되면서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내포 인구 확장 등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는 것이다.

서해선-KTX 연결사업은 2021년 7월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이듬해 3월 국토부가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해 1년간 수행했고, 지난 6월 예타를 신청했다.

도는 서해선-KTX 연결이 내포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만큼, 예타 대상사업 선정 직후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통상 예타 1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1년, 기본 및 실시설계 3년 등의 행정절차로만 5년이 걸리는데, 국토부에 절차 단축을 건의해 착공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연장 구간이 일반 철도사업보다 짧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완화한다면 2030년 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